기름값 다시 '들썩'…20주만에 반등

광주 하룻새 4.36원 올라 1902원·전남 1913원

국제유가·환율 상승…50~60원까지 올리기도

지난주까지 20주 연속 하락하던 기름값이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통 휘발유 값은 ℓ당 1901.87원, 전남지역은 ℓ당 1912.75원으로 1주일 전 ℓ당 1895.76원, ℓ당 1910.78원에서 각각 6.11원, 1.97원 올랐다. 특히 광주의 휘발유 값은 불과 하루 전인 5일에 비해 4.36원이나 상승했다.

실제 이날 광주지역 수 곳의 주유소들은 ℓ당 가격을 한번에 50~60원 이상 올리기도 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5일 기준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올렸다"며 "주유소에 따라 가격 상승 이전의 매입 물량을 소진하고 새로 기름을 사온 주유소들이 한번에 크게 가격을 올렸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값은 지난 1월 첫 주 ℓ당 1900.89원을 찍은 이후 1800원대로 내림세를 지속하다 한 달여 만인 6일 다시 1900원대로 올라섰다. 전남지역도 지난달 31일 최저점을 찍은 뒤 점차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용 경유 값도 함께 뛰었다. 6일 광주지역 자동차용 경유값은 ℓ당 1726.10원으로 1주일 전 1723.06원보다 3.04원 올랐고 전남지역은 ℓ당 1734.42원으로 1주일 전 ℓ당 1734.29원보다 0.13원 소폭 상승했다.

기름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경기부양책 유지 결정 및 중동 정정 불안 등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2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탓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월 넷째 주부터 1주 단위로 배럴당 3달러 가량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에 1월 둘째 주 지난 1년간 최저점(1056.00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도 2월 들어 지난 3개월 새 최고인 1095.00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오피넷은 다음주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값을 ℓ당 1910원대, 경유값은 ℓ당 1733원대로 예측했다. 전남지역도 다음주 각각 ℓ당 1924원대, 1742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명절은 소외이웃과"

사랑샘터 45호점 선정·독거노인 위문 등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사흘 앞두고 이웃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6일 오전 남구 주월동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사)실로암 사람들'에서 송기진 행장, 광은리더스클럽 김홍균 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JB사랑샘터 45호점' 선정식과 후원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후원행사에서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은 KJB사랑샘터 45호점 선정을 기념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함께 전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송 행장은 북구 우산동 거주, 건강악화로 고생하고 있는 독거노인 강모 할머니를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한편 올 설 명절을 맞아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KJB사랑샘터 및 영업점별로 자체 선정한 사회복지시설 등 190곳을 일제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총 6000만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전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보, 올 40조 지원 역대최대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일반보증 잔액을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늘린 4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6일 "올해 한국 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보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신보는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올해 경기 흐름에 대응하려고 신규 일반보증 목표(10조5000억원)의 3분의 2 수준인 7조원을 상반기에 공급한다.

유동화보증과 시장안정보증 등을 포함한 전체 신규 보증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4조원이다.

최근 주요국의 통화 완화 조치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8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3조7000억원을 유동화보증으로 지원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리옷 입었어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델들이 '우리 옷 한복의 멋'을 주제로 궁중 한복 패션쇼를 펼쳤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은행 예대금리차 2.61%P

3년만에 최저

2011년 6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18개월간 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신(예금)금리의 격차가 계속 줄어 3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의 수익구조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의 총 대출 평균금리는 연 5.31%, 총 수신 평균금리는 연 2.75%로 금리차가 2.61%포인트였다.

이는 2009년 11월의 예대금리차 2.58% 포인트(대출 5.80%, 수신 3.22%) 이후 가장 적은 폭이다.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한창이던 2009년 3월(1.73% 포인트) 이래 2011년 4월(3.01% 포인트)까지 확대 추세를 보여왔던 것과 정반대다.

이 기간 은행들은 몇 차례 기준금리의 인상에도 수신금리를 연 4%대에서 3%대로 낮추고 대출금리를 5%대에서 6%대로 올렸다.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덕에 은행들은 '장밋빛 수익구조'를 만들며 금융위기를 넘겼다. 2011년 5월과 6월엔 3.01%로 정체됐던 예대금리차는 이후 작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매달 적게는 0.1% 포인트, 많게는 0.6% 포인트씩 줄었다.

예금 및 대출 금리차이는 2011년 7월 3.00%포인트에서 12월 2.96%포인트로 3% 벽이 붕괴한 뒤 작년 6월 2.84% 포인트, 9월 2.71%포인트, 11월 2.62%포인트로 멈춤 없이 축소됐다.

작년 7월과 10월에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은행들이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좁혀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작년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84%, 저축성 수신금리는 3.10%로 집계돼 1.74%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연합뉴스

은행 실적악화 순익 23% 급감

지난해 9조원…이자이익은 1조원 줄어

저금리 장기화 여파로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수익력을 보여주는 순이자마진(NIM)은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았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은행권 당기순이익이 9조원으로 전년 11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23.2%) 줄었다고 6일 밝혔다.

분기별로는 작년 1분기 3조3000억원(일회성 이익 제외시 2조8000억원)에서 2분기 2조1000억원, 3분기 2조원, 4분기 1조5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49%, 6.41%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4분기 ROA는 0.33%, ROE는 4.33%까지 낮아졌다.

일회성 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들고 저금리 기조가 확산해 예대마진이 축소된 결과다.

이자이익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자수익자산 규모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NIM이 계속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자이익은 3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줄었다. 분기별로도 1분기 9조7000억원, 2분기 9조6000억원, 3분기 9조5000억원, 4분기 9조3000억원 등 꾸준히 감소했다.

NIM은 2.10%로 금융위기 당시를 빼면 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비이자수익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8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줄어 반 토막 났다.

/연합뉴스

하이힐에 발암물질

기표원, 14개 공산품 리콜

기술표준원은 최근 전기장판 등 공산품 23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W사의 전기장판, I사의 여성용 구두 등 1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장판(1개)와 전기요(3개)는 충전부가 노출돼 사용시 감전될 수 있고, 전기매트(2개)와 전기방석(3개)은 열선온도 기준치 초과로 인한 화상 및 감전, 화재 위험이 있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여성구두(1개)는 발암유해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보다 37배나 높게 검출됐다.

이밖에 고령자용 지팡이(1개), 고령자용 목욕의자(1개)는 접합부 파손, 부러짐 등으로 인해 낙상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연합뉴스